

“불참 시 불이익” 행사 참여 논란돼

황인찬 기자 philip0503@khu.ac.kr

【국제】산업디자인학과(산디과)가 개강총회 불참 시 학점과 장학금 혜택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일 산디과 학생회는 학과 단체 채팅방에 2학기 개강총회 일정을 공지했다. 해당 공지에선 ▲개강총회 개요 ▲일시 ▲장소 ▲학과장 당부 말씀 등을 안내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학과장 당부 말씀이었다. 산디과 학생회는 “학과장님께서 학과 행사는 기본적으로 반드시 참여할 것을 권고하셨으며 불참자는 학점과 장학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공지했다.

학생회가 명시한 불이익 사항은 장학금 혜택과 학점이다. 장학금 불이익은 모범장학 선발 기준에서 발생할 수 있다. 모범장학 선발 기준은 ▲품행이 바른 자 ▲학과에 기여한 자 ▲과제전 우수자 ▲전국공모전 수상자다. 다른 단과대에 비해 정량적이지 않은 예술·디자인대학 모범장학 선발 기준에 따라 학과 행사 불참을 근거로 제시한다면 불참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는 것이다.

다른 단과대는 정량평가로 모범장학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 예로 국제대학은 성적 100%가 기준이다. 또한 생명과학대학의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는 ▲전공성적(70%) ▲가산 점수(30%)를 반영하며 식품생명공학과는 ▲전공성적(70%) ▲신청서 및 자기소개서(5%) ▲가산 점수(25%)를 반영한다. 가산 점수는 ▲봉사활동 ▲외국어 자격증 ▲생활보호대상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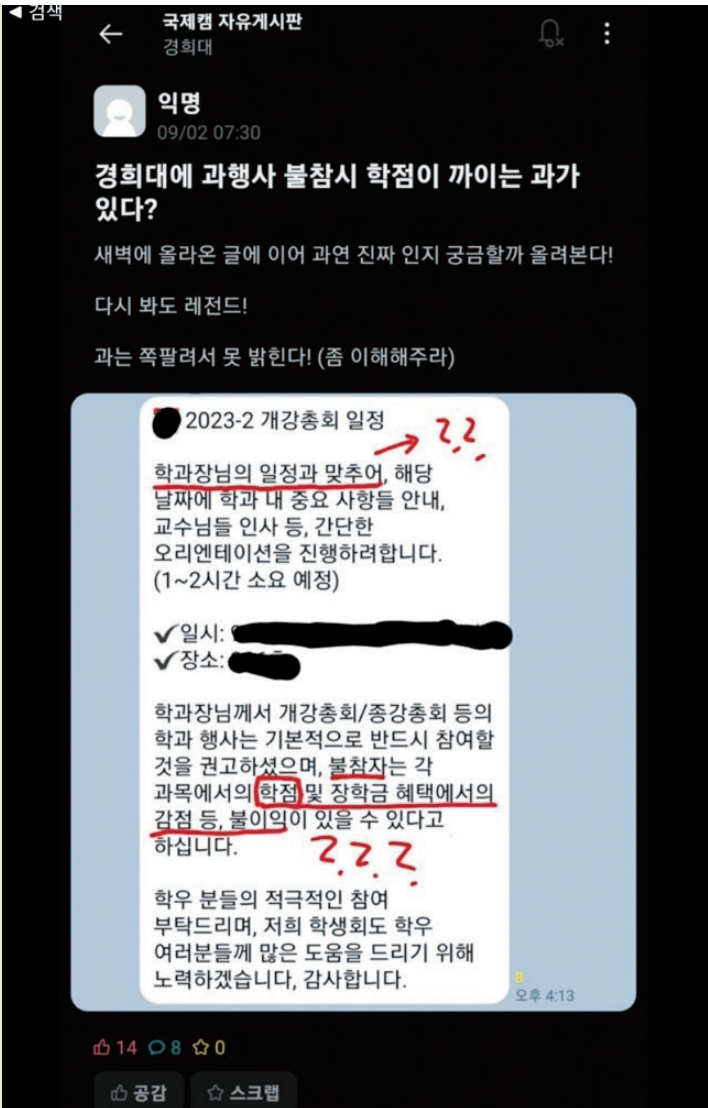
정 여부 등을 통해 평가한다.

개강총회 불참이 학점에 미치는 불이익에 대해 학사지원팀 측은 “성적 산출은 강의계획서에 명시된 평가 항목에 따라 해야 한다”며 “학과 행사 참여 여부를 성적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우리학교 「학칙 제46조 1항」에 따르면 학업성적은 ▲시험성적 ▲과제평가 ▲출석 상황 ▲학습 태도 등을 종합하여 등급으로 평가해야 한다. 개강총회를 비롯한 학과 행사 참석 여부가 학습 태도를 반영하며 출석을 확인할 만큼의 가치를 가지는지는 교수자의 판단에 달려있다.

논란은 우리학교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으로부터 시작됐다. 처음 문제를 제기한 게시글 작성자는 “행사 참여 여부는 개인의 자유로 인정해야 하지 않냐”며 “불참했다는 이유로 개인의 학업 노력을 깎아내리는 행위는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후 관련 글이 잇따라 올라오며 문제에 공감하는 여론이 형성됐다.

논란이 일자 학생회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참석 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재공지했다. 학생회는 “지난 학기 진행된 학과 행사들 모두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다”며 “이번 학기엔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학과장님께서 강한 조치를 제시할 것을 부탁하셨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이 보다 학과에 소속감과 애정을 가지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해당 내용을 공유했다”



산디과가 개강총회에 불참하는 학생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공지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이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사진=‘에브리타임’ 게시판 캡처)

며 “학우분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학생회로서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산디과 재학생 A 씨는 “이전에 학과행사 참석을 강요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이번 개강총회의 경우 시간대가 오후 12시 30분이었기에 수업 혹은 아르바이트 시간과 겹치는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능했다”고 전했다. 산디과 재학생 B 씨는 “저를 비롯한 다른 동기도 매우 당혹스러움을 느꼈다”며 “학과장님이 아니라 학생회가 사과한 것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학과 단체 행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먼저 형성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A 씨는 “개강총회에 참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 같다”며 “행사 참여를 강조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다른 재학생 B 씨는 “불이익을 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개강총회의 의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강총회의 큰 이점인 학과 사람과의 교류 활성화 제고를 위해 이벤트나 미션 등을 기획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소수만 혜택받는 의료공제

한주현 기자 1hji@khu.ac.kr

【서울】우리학교 학생의료공제(의료공제)가 홍보 부족으로 납부 인원과 수혜 인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료공제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납부 인원 대비 수혜 인원은 16.2%다. 전체 의료회비 납부 인원 6명 중 1명만 혜택을 받는 꼴이다. 지난해 1학기엔 납부 인원의 16%가, 2학기엔 19%가 공제받았다.

납부 인원과 수혜 인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의료공제에 대한 홍보 부족이다. 현행 의료공제는 학기 중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한 뒤 청구 기간 내 서류를 제출하면 본인 계좌로 진료비가 지급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의료회비는 등록금을 납부할 때 자율경비로 고지되고 납부 과정에서 별도 안내나 설명을 찾을 수 없다. 현소담(정보디스플레이학 2022) 씨는 “처음에는 다 내야 하는 줄 알아서 납부한 사실도 몰랐다”며 “학생의료공제회가 무엇인지,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학생의료공제가 적자인 문제점도 있다. 최근 세 학기 동안 적자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2학기에는 공제 급여가 납부된 의료회비보다 22,080,000원 더 많았다. 학생의료공제회 배성원 담당은 “학생이 많이 이용할수록 적자가 쌓이는 구조다”며 “2011년부터 동결해온 의료회비를 불가피하게 올려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제2기숙사 학식, 업체 변경 후 불만 쇄도

서나은 기자 merlo@khu.ac.kr

【국제】제2기숙사(기숙사) 학생 식당(학식) 업체가 리앤이라마피네로 변경된 뒤 학생들의 민원이 증가했다. 민원은 주로 가격에 비해 낮은 질, 사라진 추가 밥, 팝업텔리 운영 중단에 모아졌다.

학생들은 가격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질은 이전보다 떨어진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최한나(환경학및

환경공학 2020) 씨는 “가격은 올리고 더 형편없는 학식이 제공되니 다들 기가 차고 어이없어했다”고 전했다.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사진과 함께 “감자탕이 원래 이렇게 하얗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민원이 쇄도하자 기숙사 측은 지난 5일 공문을 통해 업체 측의 즉각적인 개선을 요청했다.

이에 업체는 지난 7일 타 사업장

조리실장을 파견했다.

팝업텔리는 식당이 안정화된 뒤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기숙사 측은 “식당 안정화는 15일 정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숙사 측은 신규 업체 선정 과정에서 학기별 만족도가 3회 이상 미달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고 한다. 이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식당 운영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